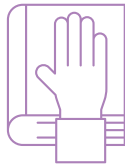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2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2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법원행정처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펴내는 글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타인과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기도 하고 해결하여 주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재판’이고 그러한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법, 법원, 재판제도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청소년들 중에 법, 법원, 재판제도라고 하면 막연히 두렵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법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우리 청소년들이 법, 법원, 재판에 관하여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정확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알려드리기 위하여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를 발간하였습니다. 책자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이야기’,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재판 이야기’, ‘세계의 법원과 재판 이야기’, ‘교과서 속, 법으로 사는 세상’ 등 주제별로 구성된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청소년 여러분들이 재판과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책자를 통하여 인권과 법치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법, 법원, 재판이라는 주제를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신 집필진 및 이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기 우 중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재미 2배, 효과 2배 교재 활용법!



본 교재는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재판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제1장 ‘그림으로 생각해보는 재판의 기원’에서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재판을 묘사한 그림들을 통해 재판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해되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제2장 ‘재판의 원칙과 법정 풍경’에서는 재판에 관련된 원칙들과 법정의 모습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제3장 ‘재판의 종류와 절차’에서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등 다양한 재판의 종류와 그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소송만이 정답일까?’에서는 사회구성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판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적인 해결방법들이 있으며 재판과 소송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교재의 제2장과 제3장의 내용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학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제1장과 제4장의 내용은 법에 관련된 상식과 이야깃거리의 차원에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법과 재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 나가시다 보면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재판이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필진 일동

CONTENTS



Chapter 1

그림으로 생각해보는 재판의 기원

- | | |
|---|----|
| 1. 신들의 재판을 상상하다 - 이집트 사자의 서
(Book of the Dead) | 11 |
| 2. 신의 이름으로, 하지만 인간의 지혜로
- 솔로몬의 재판 | 14 |
| 3. 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 갈릴레이의 재판 | 16 |
| 4. 법의 상징, 재판의 상징 | 19 |



Chapter 2

재판의 원칙과 법정 풍경

25



Chapter 3

재판의 종류와 절차

35



Chapter 4

소송만이 정답일까?

43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 2



Chapter 1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그림으로 생각해보는 재판의 기원

1. 신들의 재판을 상상하다 - 이집트 사자의 서(Book of the Dead)
2. 신의 이름으로, 하지만 인간의 지혜로 - 솔로몬의 재판
3. 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 갈릴레이의 재판
4. 법의 상징, 재판의 상징



생각 돋보기

재판은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늘 존재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와 그림들을 잘 살펴보면 당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관념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이 재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신화와 그림, 이야기들을 통해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는 차원에서 역사 속의 유명한 재판에 관한 그림과 이야기들을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 인간에게 재판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관념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알아봅시다.



신들의 재판을 상상하다

- 이집트 사자의 서(Book of the Dead)

Chapter 1

그림으로 생각해보는 재판의 기원



사자의 서에 나온 심장 무게 달기 의식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 세계와 환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 사후 세계를 안내하는 책인 '사자의 서(Book of the Dead)'를 그의 관에 함께 넣었다고 합니다. 사자의 서에는 그가 정의의 저울 의식을 무사히 통과하여 저세상에 잘 도착하도록 도와줄 주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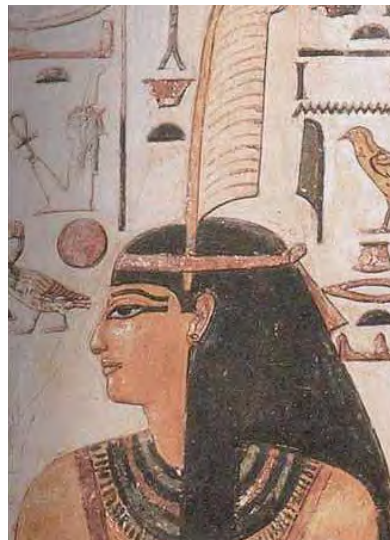
위의 그림은 사자의 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오시리스(Osiris)의 재판 장면입니다. 오시리스는 부활의 신이며 사후 법정의 재판관입니다. 그림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승사자인 야누스(Janus)가 흰옷을 입은 죽은 자의 손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야누스는 그의 심장을 정의의 저울에 올려놓고 살았을 때의 죄를 가늠합니다. 저울 한쪽에는 죽은 자의 심장이, 다른 한쪽에는 정의의 여신인 마아트(Maat)의 머리에 꽂혀있는 깃털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울을 잰 결과를 오시리스에게 보고하면, 오시리스는 죽은 자가 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그는 악어, 사자, 하마의 모습이 섞인 괴물인 아미트(Ammut)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리고 널리 알려진 재판에 관한 이야기 중 하나는 이집트의 ‘사자의 서(Book of the Dead)’에 나온 재판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사람이 죽고 나면 저승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관념은 여러 문화권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도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 죽은 자에 대한 심판과 다양한 형벌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승사자나 염라대왕과 같은 관념도 이집트 사자의 서에 나오는 야누스와 오시리스의 역할과 매우 비슷하지요.

이와 같은 전설들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은 재판을 신이 인간의 죄를 판단하는 신비한 영역, 인간이 감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법 또한 인간이 임의로 만든 법이 아닌 신의 법이겠죠.

하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면 좀 더 재미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위의 설명에 나온 것처럼 재판은 저울의 한쪽에 죽은 이의 심장을, 다른 한쪽에 여신의 깃털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을까요? 흥미롭게도 깃털과 심장의 무게가 수평을 이루어야 죽은 이가 내세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법, 그리고 재판의 기능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 즉 현재의 질서를 그대로 지키는 데에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사후 세계의 재판이라는 관념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 많은 문화권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추측하자면 현 세에서는 너무나 불공평한 일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엄한 벌을 받아 마땅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오히려 잘 살아가는 이상한 현실,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늘 손해 보고 힘든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는 이들은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억울함을 갖고 있지요. 이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면 이승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 저승에서라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나쁜 짓을 한 이에게 벌을 내리고 착한 이는 보상을 받는다는



깃털을 머리에 꽂은 마아트

식의 관념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재판은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를 바탕으로 세상의 균형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하지만 인간의 지혜로

- 솔로몬의 재판

02



Chapter 1
그림으로 생각해보는 재판의 기원



어느 날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인이 와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저 여인이 자신이 낳은 아기가 죽자 제가 잠든 틈에 아기를 훔쳐 갔어요!”

그러자 다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진짜 이 아기의 엄마예요!”

두 여인의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위의 신하에게 큰 칼을 가져와서 아기를 반으로 쪼개어 각각 나누어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란 첫 번째 여인은 자신이 아기를 포기할 테니 아기를 죽이지 말고 상대방 여인에게 그냥 주라고 말했

제2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인은 차라리 그렇게 아기를 반쪽으로 갈라 나누어 갖는 것이 낫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아기를 반쪽으로 나누자고 한 여인은 아기에 대한 애정이 없는 가짜 엄마이고, 아기를 포기해 서라도 살리려고 한 여인이 진짜 아기 엄마이다!”

문서상의 기록으로 남은 가장 오래된 재판 이야기는 아마 구약성서 열왕기에 실린 ‘솔로몬의 재판’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도 지혜의 상징, 법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위의 재판 이야기를 자세히 뜯어봅시다. 과연 솔로몬의 재판은 현명하고 올바른 재판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아본다는 이유로 아기를 거꾸로 들고 칼로 위협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기를 위험하게 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두 여인의 속내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 두 여인을 속여서 결론을 얻었다는 점에서도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기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이유로 그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면 약간 애매한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진짜 엄마라면 아이를 빼앗기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아이의 목숨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라는 상식을 바탕으로 한 추측일 뿐이지요.

이 재판을 앞서 살펴본 이집트의 사자의 서와 비교해서 본다면 재판이 신의 일에서 인간의 일로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관은 보통 인간이 아닌 ‘왕’이고 재판의 원칙이나 절차 또한 왕의 즉흥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규범에 따라, 어떤 절차로, 어떻게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논의를 통해 법에 재판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판사의 역할과 그 한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이 규정되고 법에 기반한 재판이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 갈릴레이의 재판

03



Chapter 1
그림으로 생각해보는 재판의 기원



교황청 추기경위원회로부터 심문을 받고 있는 갈릴레이

갈릴레이(Galileo Galilei)는 직접 만든 망원경을 가지고 많은 천체관측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로마교황청의 공식의견이었던 천동설¹⁾이 잘못되었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²⁾이 옳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이단심문소는 재판을 통해 갈릴레이에게 앞으로 지동설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갈릴레이는 지동설에 관한 책을 펴냈고, 그 책은 금서목록에 올랐습니다. 갈릴레이는 1633년 로마로 소환되어 이단심문소의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이는 앞으로 절대 이단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 태양을 비롯한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설

2) 지구를 포함한 별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설

제2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재판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판사의 역할과 그 한계 등을 명시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법조차도 오랜 세월 동안 신의 이름을 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을 지배한 법은 성직자들과 교회, 성경의 권위에 기반한 종교법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은 그 자체로 신성한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세속의 일들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종교적 질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사고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논리적, 수학적, 경험적 사고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세상을 해석하고 놀라운 지식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과학은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신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라는 공존하기 어려운 두 세계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갈릴레이의 재판입니다.

천동설은 지동설이 입증되기 이전까지 진리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지동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 상황에서 보면 당연히 천동설이 틀린 것이지요. 하지만 당시 천동설은 아무런 경험적 근거가 없이 마구잡이로 제시된 학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가장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학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교황청에서 학설의 하나일 뿐인 천동설이 종교적 교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천동설을 공식의견으로 채택하였고, 이에 천동설은 종교적 권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천동설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적 영역의 문제에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게 되자 이후 천동설에 어긋나는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더라도 이 증거들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학설인 지동설을 배척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미 학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관측결과를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책을 썼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즉, 종교적 질서를 옹호하는 성직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갈릴레이의 ‘공식 입장’은 학문적 영역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지배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갈릴레이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그에게 ‘이단’이라는 딱지를 붙여 종교재판을 열었던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위협을 느낀 갈릴레이는 자신의 뜻을 굽히고 다시는 지동설을 지지하는 책을 펴내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재판정을 빠져나오면서 갈릴레이가 “그래

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단심문소의 의지대로 결과가 나온 것이니 신의 질서가 승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달리 보자면 로마교황청이 학자들의 연구나 학설에 일일이 재판을 열어 제재를 가하고 억압을 해야 할 만큼 합리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인간의 질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니 로마교황청의 승리는 그리 오래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발전과 사회제도의 변화, 그리고 이를 뒤이은 시민혁명에 의한 정치제도의 변화는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질서로 세계를 재편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법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재판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마치 ‘법(法)’이라는 한자에 담긴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맨 처음 신에서 비롯되었던 법은 오랜 세월을 걸쳐 마침내 인간의 법, 인간의 재판이라는 바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2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법의 상징, 재판의 상징

해태



법과 재판을 상징하는 상징물 중 동양을 대표하는 것은 해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태는 예로부터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사악한 사람을 징벌하는 상상 속의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法)’이라는 한자도 현재는 물수(水)자와 갈 거(去)자가 합쳐진 형태로 되어 있지만 옛 중국의 글자에는 갈 거자 위에 ‘해태 치’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굳이 쓰자면 ‘灋’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너무 획수가 많아져서 쓰기 불편해지니까 해태 치자가 나중에 생략된 것이지요. 그만큼 해태는 공정한 법적 판단과 집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을 담당하는 관리가 머리에 해치관을 쓰거나 가슴에 해태



해태를 그린 민화

의 그림을 새긴 흉배로 장식한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즉, 법에 따라 내려진 판단은 판관이 단순히 개인으로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신성한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해태가 옳고 그름을 가려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불(=분쟁)을 끄는(=해결하는) 역할과 연상 작용을 일으키면서 ‘해태는 불을 끄거나 더 나아가 화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민간의 믿음을 불러일으킨 점입니다. 해태의 다리와 몸이 물고기처럼 비늘로 덮여있는 것도 해태가 불을 끄는 존재이니 물에 사는 짐승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조건물이 다수였던 옛 시절에는 화재 예방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해태상을 집안에 두거나 지붕 위에 작은 조각품으로 만들어 올려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태처럼 법이나 자연의 규칙을 상징하는 동물들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존재합니다. 중국에는 기린이나 사자상이 있고, 일본에는 신사 앞에 ‘고마이누(狛犬)’라는 개의 석상이 해태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유니콘이 뿔과 그름을 가리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한결같이 뿔이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 등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요소들과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법이 갖고 있는 ‘힘이 세다, 강제성이 있다, 지켜야 한다’는 이미지가 상상의 동물들에게 반영되어 그 외형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정의의 여신



서양에서 법과 재판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정의의 여신은 우리가 맨 앞에서 다루었던 이집트의 마아트 여신이 바다 건너 그리스로 넘어가 ‘디케(Dike)’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서양사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의의 여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한 손에는 저울,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죄의 무게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칼로 응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의 여신의 모습이야말로 지금까지도 ‘재판’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에타노 간돌피, 《정의의 여신의 우의화》, 19세기경

정의의 여신이 지닌 특징적인 모습 중에서 한 손에 들고 있는 저울은 앞서 보았던 이집트의 사자의 서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고대 그리스의 정의의 여신상은 칼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시대였던 중세에 들어 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인 교회를 평일에는 재판소로도 이용하면서 한 손에 창을 들고 악마와 싸우는 대천사 미카엘

의 성화가 정의의 여신과 중첩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울과 칼을 동시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돌피(Gaetano Gandolfi)가 그린 p.20 그림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정의의 여신이 지닌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눈을 가린 ‘안대’의 존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정의의 여신은 안대를 하고 눈앞에 누가 왔는지 보지 않은 채 공정하게 판단하고자 한다고 알고 있으셨을 텐데요. 실은 이렇게 안대를 하지 않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안대는 중세 말기에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정의의 여신이 눈이 멀었다’는 의미로 여신의 눈을 안대로 가리는 풍자화가 그려진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더 크게 눈을 뜨고 잘 살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자애로운 눈을 밝게 뜨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힘보다는 지혜로 정의를 밝힌다는 뜻으로 칼이 아니라 법전을 들고 있고, 서양의 여신이라기보다는 우리 문화에서 전래되어 온 선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훨씬 정감이 갑니다. 나중에 대법원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길 권합니다.

한 걸음 더!

우리 대법원의 상징

서초동에 자리 잡고 있는 대법원에 가면 전형적인 한국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무궁화 꽃더미 위에 살포시 앉아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과 달리 한 손에는 칼 대신 책을 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그 책의 형상 역시 서양식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우리 고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아 만든 법전을 들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원에서는 이 정의의 여신상을 좀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디자인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상징마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는 좀 더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법원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마크는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처럼 한 손에는 저울,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미래를 응시하는 법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 2



Chapter 2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재판의 원칙과 법정 풍경



재판의 원칙과 법정 풍경

생각 돋보기



이 사진은 조선 시대의 재판 모습입니다. 갓과 도포를 입은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다르지만 높은 자리에 앉은 판관의 모습이나 좌우로 늘어난 아전들, 그리고 그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쩐지 동서양과 시대를 넘어서 변하지 않는 풍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대 민주사회의 재판은 겉모습뿐 아니라 그 원칙과 운영방식에서 예전의 재판과 크게 다르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사법제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장에서는 재판에 담긴 원칙들을 설명해드리고 아울러 법정의 실제 모습은 어떤지 살짝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너무나 가까운 사이인 가족끼리도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저녁에 먹고 싶은 음식이나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에서도 차이가 있곤 하지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끼리는 이러한 의견 충돌이 더 크게,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 속에 분쟁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울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사람들 사이에 생긴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재판이지요. 재판은 법원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말해요. 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법적인 절차인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판의 권리는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이 부분이 바로 누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재판청구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문제가 생겼다면 재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예요. 이때 재판은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해요.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판청구권의 내용

1. 재판을 받을 권리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4.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재판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원칙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2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공개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재판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은 이 조항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예요.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어요.

재판이 공정하게 행하여지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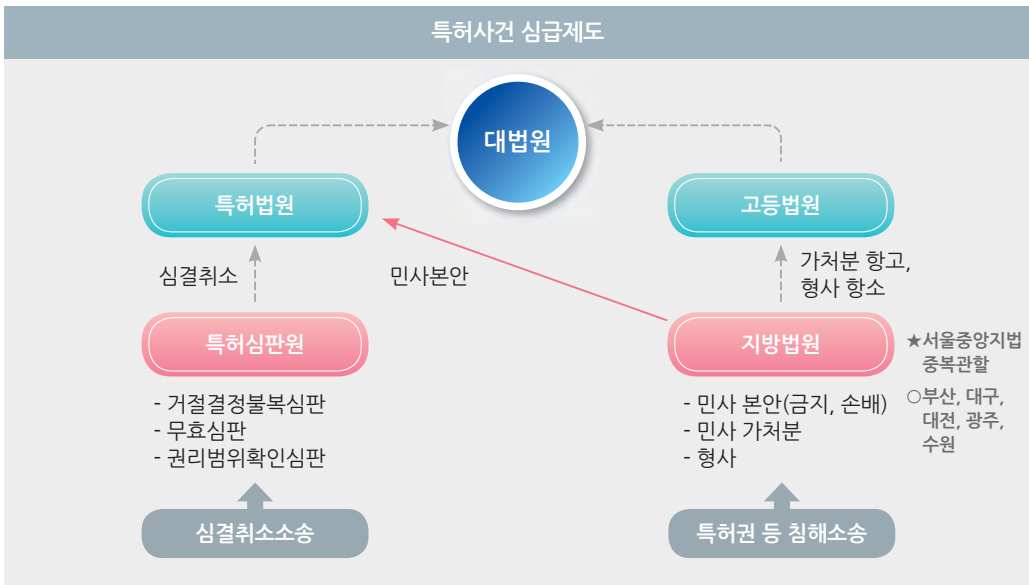
이 조항을 통해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 있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다만 재판의 심리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급제도



우리나라의 재판제도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형사사건 중 단독사건은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 → 대법원’의 순서로, 합의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



서로 각 심급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군사재판은 ‘보통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대법원’의 차례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소송은 과거에는 ‘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급으로, 그리고 행정소송 중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소송제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했었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

는 1심법원으로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3심제가 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1998년 3월 1일 특허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특허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 부터는 특허권 등 침해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관할하게 됨에 따라 특허권 등 침해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서울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지방법원) → 특허법원(항소심) →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3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정의 모습



이제 실제 법정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법정의 모습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단 판사는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지요.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국가의 대리인입니다.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위한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형사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열릴 경우 배심원은 사건과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전혀 없는 일반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법원에서 하는 재판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이고요.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 즉 원고와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 즉 피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처럼 검사 대 피고인과 변호인의 구도가 아니라 소송을 건 사람 대 소송이 걸린 사람의 구도로 이루어지지요.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부 형사사건에만 도입되었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는 배심원도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의 법정에는 배심원석이 없고, 원고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앉아서 상대방에 있는 피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과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신전에서의 봉헌(1324년 작품)



형사법정의 모습

위의 그림을 한 번 보세요. 법정의 구조가 신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판사가 앉아 있는 자리는 정면에 약간 높게 만들어져있어서 재판의 구성원들이 올려다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 주변으로 검사, 변호사, 피고인 등이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법정 가운데 공간에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과 대화들을 기록하고 재판 진행을 돕는 사람들이 자리합니다. 중세 유럽의 도시에서 교회가 법정으로 활용되다보니 교회의 모습이 현재의 법정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신전과 법정의 모습이 비슷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조가 법의 신성함과 법정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법복의 변천



법관들이 입고 있는 법복도 이런 전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먼저 법복의 색깔을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법복은 검은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의 복식문화에서 검은색 복장은 공정과 지혜, 양심을 상징하는 전문직 종사자들만이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법관과 목사, 학자와 같은 직군들이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법복의 형태를 살펴보면, 서양에서는 신의 권위가 강하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사제복을 토대로 법복이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직자들의 옷과 법관들의 옷이 비슷해졌습니다. 여기에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소품들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영국의 법관들은 가발을 쓰기도 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모자를 쓰기도 하며, 독일에서는 펜던트를 걸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우리나라의 법복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재판정복의 착용은 일제강점기부터입니다. 1920년에 마련된 법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동나무 무늬가 새겨진 검은색 바탕의 법복과 구름무늬가 있는 모자를 착용하였습니다. 오동나무 무늬의 색깔을 판사는 자색, 검사는 비색, 변호사는 흰색으로 하여 구분했습니다. 광복 이후 법관들은 일제의 법복에서 벗어나 두루마기나 양복과 같은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 법복의 모습

1953년 법복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최초의 우리 법복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법복과 법모는 모두 검은색이었고, 법복의 앞가슴에 각 직업별로 다른 색의 무궁화 무늬가 수놓아졌습니다. 수놓인 무궁화의 색깔은 판사가 흰색, 검사가 황색, 변호사가 자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모의 무궁화 무늬 속에 태극장이 새겨졌습니다.



가슴에 무궁화가 수놓아진 대한민국 최초 법복의 모습



이전보다 간소화된 법복의 모습

이후 1966년 법복에 관한 규칙이 새롭게 제정되었는데, 이 규칙에 따라 법복은 검은색 가운 모양으로 하고 무궁화 무늬를 없앴으며, 넥타이를 착용하고 법모를 없애서 법복이 간소화되었습니다. 1992년부터는 무늬 없는 검자주색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1998년에 다시 법복이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법복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전통성을 유지하였고, 앞단에 법원 상징 문양이 있는 검자주색 양단을 대고, 소매형태와 매듭장식 등에는 한국적인 미를 가미하였습니다. 넥타이는 법원 상징 문양이 직조된 짙은 회색을 착용했습니다. 우리 법복이 최초로 마련된 1953년부터 법복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는데, 1998년부터는 여성 판사와 여성 검사의 경우 넥블라우스 위에 열린 은회색의 에스코트 타이를 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법조인용 가발

법정과 법복 이외에 ‘재판’이라고 하면 또 무엇이 떠오르나요? 가발과 법봉이 떠오르지 않나요?

서구권의 영화 속 재판장면을 보면 하얗고 꼬불꼬불한 가발을 쓴 법관이 커다란 나무망치를 광광 두드리며 판결을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가발(wig)은 영국의 법조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영국이 제국으로 확장되면서 영국의 법조인들이 사용하던 가발이 호주 등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 법정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가발을 왜 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 머리술이 적어서

이걸 감추려고 썼다는 말도 있고, 옛날엔 법정 안이 추웠기 때문에 방한의 목적으로 썼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와 법정 변호사 등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가장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복과 마찬가지로 가발도 법조인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하는 장치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렇게 가발이 법조인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이 전통을 중시하는 영국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가발을 씌으로써 법조인들이 익명성을 보장받아서 혹시 모를 보복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가발을 벗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에서도 일단 2008년부터 형사재판을 제외하고는 가발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법봉(법망치)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시각적 효과를 위해 영화나 드라마에서 법봉을 두드리며 판결을 선고하는 모습이 많이 묘사되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원래 법망치는 재판을 진행하는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을 때 질서를 유지하고 판사의 판결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 국왕의 홀(지팡이나 지휘봉)이나 심판의 호루라기와 같은 도구로써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법망치를 만들 때는 위의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망치의 아래와 위쪽이 모두 둥근 것이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좀 더 육중한 소리를 내기 위해 받침대는 무른 나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망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권위적인 사법부의 이미지를 벗고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Chapter 3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재판의 종류와 절차



재판의 종류와 절차

생각 돋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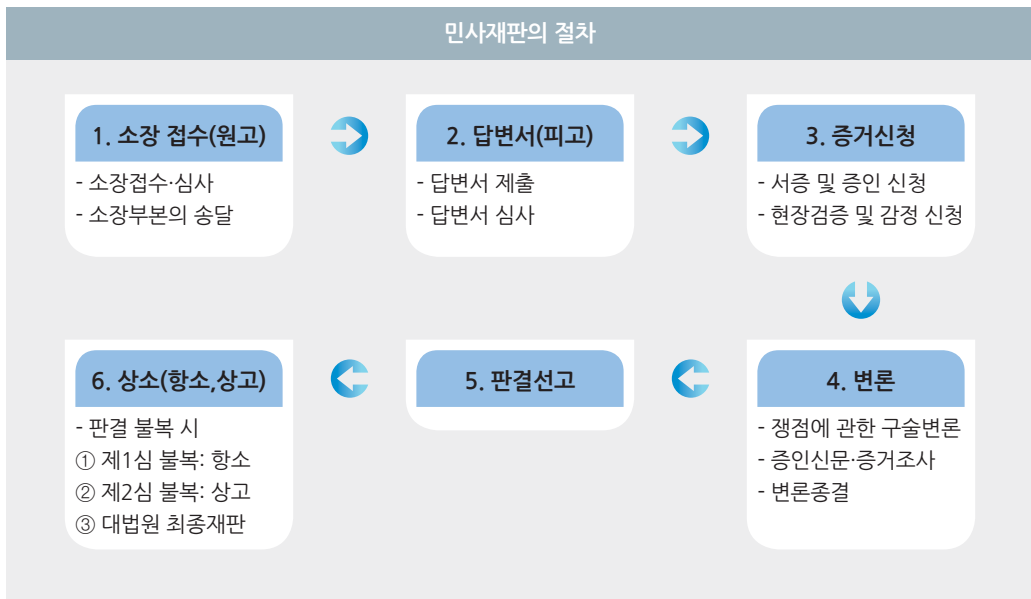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법률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되어있는 법령의 숫자는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을 제외하고도 5,121건이나 됩니다. 법의 종류도 헌법, 형법, 민법, 상법 등 다양한데 법이 다양하고 이 법들이 적용되는 사건들의 특성들이 각기 다른 만큼 재판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3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판의 종류와 그 절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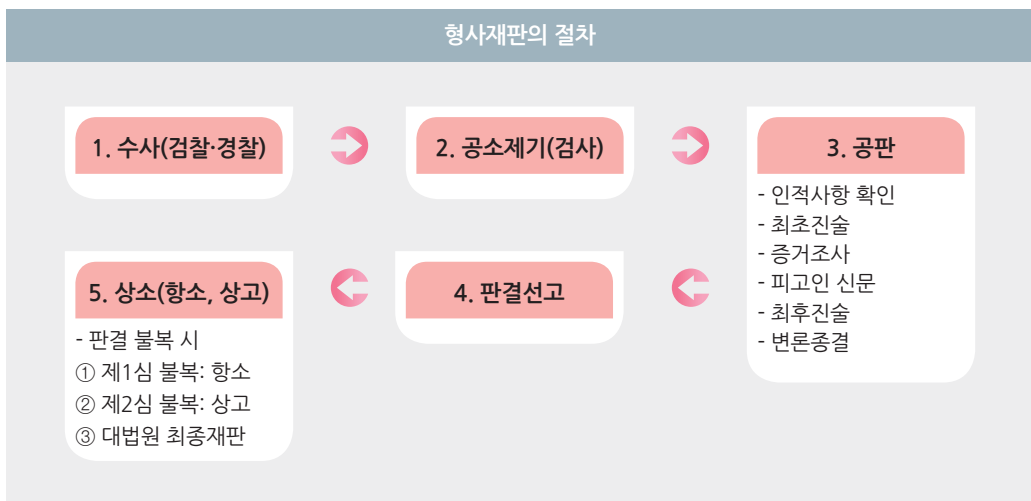
재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가사재판, 소년보호재판, 가정보호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특허재판, 군사재판 등이 있습니다. 이 재판 종류에 따라서 담당하는 사건도 달라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도 달라집니다.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소송을 당한 피고 간의 공방이 벌어지게 되지요. 민사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형사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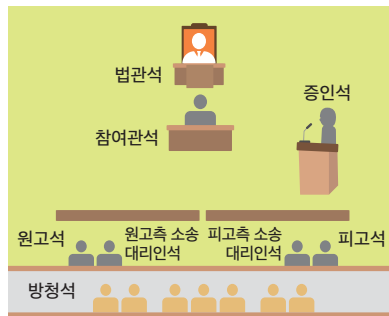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재판이지요. 앞서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있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고 대신에 검사가 있고 상대방으로 피고인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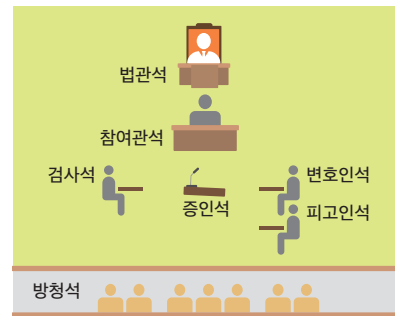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민사재판	주체	형사재판	주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청구한 사람	원고	죄지은 사람을 벌 주자고 주장하는 사람	검사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람	피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아 기소된 사람	피고인
원고나 피고의 편에 서서 재판에 이기게 도와주는 사람	소송대리인	피고인의 편에 서서 변호해주는 사람	변호인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	판사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	판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열리는 법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민사재판



형사재판

이외의 다양한 재판



먼저 **가사재판**에 대해 살펴봅시다. 가사재판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이혼소송이 가사사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요. 이외에도 결혼에 대한 문제나 부부간의 재산다툼, 상속을 둘러싼 다툼 등의 분쟁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가사재판입니다. 그런데 가사분쟁은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이외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사사건의 특성상 조정절차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조정

절차는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분쟁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절차는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할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의 결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는 **소년보호재판**입니다.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달리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특별한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목적으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을 바로 소년보호재판이라고 부르지요. 보호처분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처분인데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입니다. 어린 나이에 저질렀던 사소한 실수에 대해 성인들의 범죄와 동등한 낙인을 찍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바르게 살려는 의지를 꺾을 수도 있게 되지요. 그렇게 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행이기도 하고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르면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은 이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에 대해 소년조사관에게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심리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감호위탁하는 처분,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 소년보호시설·병원·소년원 등에 위탁하는 처분 등이 있고, 이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행정재판**입니다. 이것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기관인 행정청의 잘못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행정청을 상대로 잘못된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재판입니다. 행정재판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정재판에서는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한 문제,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에 대한 문제, 영업허가취소나 정지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룹니다.

네 번째는 **선거재판**입니다. 선거재판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다루는 선거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 등을 해결합니다.

다섯 번째는 **특허재판**입니다. 특허재판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재판입니다.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므로 과거와 달리 무형의 지적 재산에 대한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특허재판의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군사재판**입니다. 군사재판은 군인이 죄를 범한 경우 또는 군인 아닌 내·외국인이 군형법상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받는 재판입니다. 이 경우 1심과 2심 재판은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상고심은 대법원이 재판합니다. 군사법원으로는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나도 판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당원들은 유대인을 체포하여 수용소에 보내는 등 갖은 탄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탄압을 피하고자 어느 유대인 엄마는 세 아이들을 데리고 산을 넘어 이웃 나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어두운 산길을 두 아이는 걷고 젖먹이 아이는 엄마에게 안겨 쉴 새 없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 저편 끝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수색하고 있는 독일군의 트럭이었습니다.

엄마는 재빨리 아이들과 함께 길옆 풀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이들의 모습을 얼핏 본 독일군은 차를 세우고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풀숲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벌벌 떨던 가족들은 독일군이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려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품에 안겨있던 젖먹이 아기가 잠에서 깨어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에게 들킬 것을 두려워한 엄마는 엉겁결에 아기의 입을 손으로 막았고 숨쉬기가 어려워 답답해진 아기는 더욱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독일군들도 걸음을 멈추고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엄마는 더욱 힘을 주어 아기의 입을 틀어막았고 결국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독일군들은 트럭을 타고 돌아갔습니다. 독일군들이 멀리 가자 엄마는 막았던 손을 떼고 서둘러 아기의 상태를 살펴보았지만 이미 아기는 질식사하여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살인은 죄다'라는 원칙에만 따르자면 이 엄마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한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이 어쩔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의 법과 인간의 법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봅시다.

이 엄마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 2



Chapter 4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소송만이 정답일까?



소송만이 정답일까?



생각 돋보기

재판이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많은 비용과 시간의 낭비, 정신적 긴장과 피로를 가져오는 힘든 일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옛말에 ‘집안에 송사가 벌어지면 삼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사회적 차원에서도 재판은 최선의 수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하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갈등이 더 커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을 ‘척지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척(隻)’이 예전에 소송의 상대방을 일컫던 말이었습니다. 소송이 벌어지면 서로 원수가 된다는 뜻이겠지요. 따라서 소송과 재판을 대신할 수단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소송을 대신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식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대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원조정센터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2021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 9천 23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 민사·형사소송에서 영상재판이 도입되는 등 소송절차의 간편화와 신속화를 위한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담당해야 할 소송의 숫자는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사람들 간 조그만 분쟁만 발생해도 “법대로 하자!” 라고 외치는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예로부터 이웃 간의 정(情)을 중시하던 우리 사회가 어떻게 소송만능사회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치열한 경쟁사회에 접어든 정보화시대를 맞아 한 치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의식구조의 변화와 함께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사회공동체의식 붕괴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아무리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법타령’부터 하는 세상이 된 것은 아닐까요?

법치주의사회에서 분쟁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일면 합리적인 구석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서 법치주의가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무조건 ‘법대로 하자’는 식의 사고가 과연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올까요? 어떤 사람들은 효율성만을 내세워 무조건 ‘법대로 하자’주의가 우리의 전통도덕규범들을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즉 효도, 신의, 상호존중 등 공동체 유지에 꼭 필요한 소중한 덕목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특히 가족이나 이웃 간의 작은 문제까지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이러한 풍조가 우리 사회에서 불신의 벽을 더 높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만능주의의 폐해는 전통 규범과 가치의 상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를 소송으로 해결한다면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서 당사자가 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지요. 게다가 사회 분쟁 해결을 위해 투입하여야 하는 사회적·국가적 비용도 대단히 큼니다. 이렇게 보자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은 개인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낭비입니다.

이처럼 소송만능주의는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도 더러 있겠으나, 모든 갈등을 소송으로만 해결하려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까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인 분쟁해결 방법이 몇 가지 존재하고 있거든요.

제2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것, 즉 소송이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분쟁을 재판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최종 판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변호사 선임비용 등 많은 소송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비용 및 시간에 있어 비효율적이지요. 분쟁 당사자들에게도 물적으로나 심적으로 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신속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자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대안적인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란 법원을 통한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협상, 중재, 조정과 같이 제3자의 관여나 당사자 간의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미국에서는 1984년부터 ADR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분쟁의 많은 부분이 ADR 절차에 의해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ADR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요?

협상이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에 도달하는 해결방식입니다. 당사자 간 의견 조율만 잘 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되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경우 등에서는 합의에 도달하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선임한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재인은 제3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선정됩니다. 자신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재인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조정이란 제3자가 개입하여 양측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일정 부분 양보하도록 종용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중재처럼 조정자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선정하게 되지요. 그럼 중재와 조정의 차이는 무엇이냐고요? 중재가 중재인의 판결에 강제적으로 구속되는 데 반해, 조정은 조정인이 권고만 하게 됩니다. 그 권고에 동의할지 안할지는 당사자들의 자유이지요.

지금까지 ADR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ADR은 법원의 간섭이나 통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소송보다 비교적 절차 진행이 신속하고 경제적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의 진행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형식적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한 이후에도 당사자 간에 우의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요.

법원조정센터로 오세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경우 민사 분쟁의 90% 이상이 소송이 아닌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 100만여 건에 이르는 민사 분쟁사건 중 조정 건수는 5% 이하이지요. 이처럼 수많은 민사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009년 4월 법원에서는 ‘조정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법원조정센터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고, 재판부가 맡고 있는 사건을 줄여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법원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조정센터에 상임조정위원을 임명하여 조정절차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상임조정위원이 되냐고요? 판사·검사·변호사 등 10년 이상의 경력과 명성을 쌓아온 법조경력자들이 상임조정위원의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상임조정위원으로서 전문적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전까지의 조정은 조정장이 판사이다 보니 당사자들이 판결 결과를 의식하여 자유롭게 주장을 펼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은 재판을 하는 주체와 조정을 하는 주체를 분리하여 당사자들이 조정에 더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어요. 조정을 통해 민사 다툼을 해결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법원도 사건부담을 덜 수 있어 조정센터는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제도는 소송비용을 5분의 1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1심에서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는 사건처리기간을 약 3~4개월로 단축해 준다고 하네요. 정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이득이지요?

지금까지 분쟁해결 방법으로 소송 외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혹시 아직도 “재판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협상, 중재, 조정’이라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소송’이라는 커다란 가래로 막아 온 것은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분쟁이 발생했다면 소송 이외에도 ADR, 법원조정센터 등과 같은 다양한 분쟁해결방법을 고려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소송보다는 화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봅시다.

우리도 해볼까요, 청소년 또래조정 프로그램



조정이 대안적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에 도입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갈등을 무작정 외면하기 보다는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스스로 기르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내며, 이를 함께 고민하고 타협하는 긍정적 상호작용능력이 필요하지요. 학생들 간에 조정을 하는 경험을 통해 이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 미국의 변호사 단체들을 중심으로 개발된 ‘또래조정(Peer Mediation)’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래조정 프로그램이 여러가지 형태로 개발되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인 단계들은 비슷합니다. 플로리다 사범대학의 Working Together to Resolve Conflict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Take CHARGE!’ 모델을 통해 또래조정의 핵심적인 단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ake CHARGE! 모델

단계	내용
1. Check-see if you're angry	- 분노를 인식한다. - 좌절을 인식한다.
2. Hold on-Calm down & think	- 진정하고 생각한다.
3. Analyze-Figure out the cause	- 문제를 정리한다. - 원인을 생각해본다.

단계	내용
4. Reflect-On Possible Solutions	- 가능한 해결책들을 모색해본다.
5. Go for it-Pick a Solution	- 해결책을 선택한다.
6. Evaluate-See What Happened	- 나의 행동을 반성해본다.

또래조정은 갈등을 겪고 있는 두 학생이 조정을 요청하면 조정자의 역할을 맡은 다른 학생이 대화를 이끌면서 분쟁을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분쟁을 풀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가 아닌지 살피고 분노와 좌절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상황에서는 어떤 이성적인 대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추스른 후에는 갈등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함께 공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상대방은 왜 화가 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대안을 고민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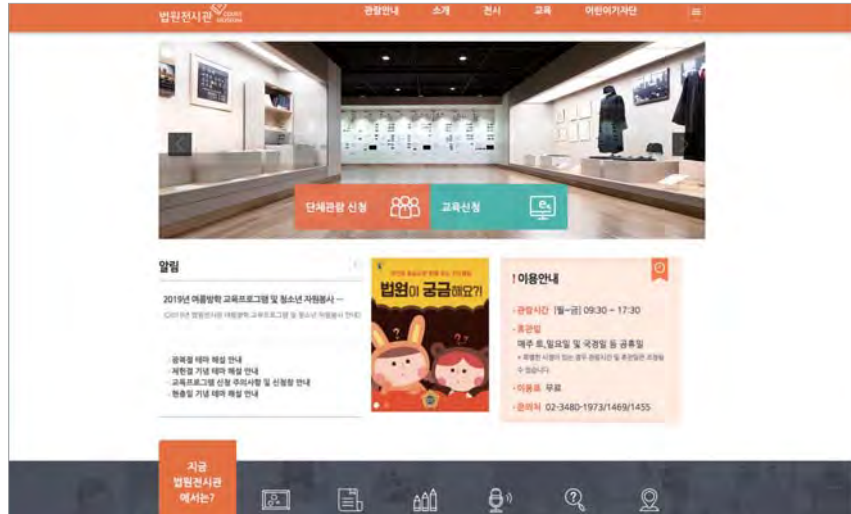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들이 가능한지 생각해보고 대안을 선택합니다. 이후 갈등의 발생과 해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학생들은 앞으로 이런 갈등을 줄이고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의 주도로 2012년 또래조정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전국 100개교로, 2018년에는 다시 전국 초중고교 9,000여 곳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확대 보급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한 교육이 학교폭력 등 청소년들의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법원전시관 홈페이지
http://museum.scourt.go.kr

법원이 왠지 낯설고 가까이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우리 법원은 보다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 견학은 법원을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느끼고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법원들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기관마다 프로그램 신청 방법이나 운영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견학하고 싶은 법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1948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법원이 일제에 빼앗겼던 사법주권을 회복하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법부로 우뚝 선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사법부는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법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법원견학 캠페인(Open Court)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법과 사법제도, 법원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전시관을 마련하였습니다.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단체가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 견학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단체 관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법원전시관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법원전시관 견학을 통해 홍보 동영상 관람, 법원 전시관 견학, 법정 및 정의의 여신상 견학, 판사와의 대화, 모의재판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전시관 견학은 우리나라 법원의 역사와 현재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법원전시관 견학 프로그램

2021. 11. 현재

구분		프로그램
전시	상설 전시	법과 법원실, 법원 역사실, 어린이 법 체험실 법정체험실, 뮤지엄샵
	기획 전시	기간 별 기획 프로그램 전시
교육	어린이	어린이 활동지와 함께 하는 전시해설
	초등학교 저학년	알쏭달쏭 법원마크
	초등학교 고학년	타임머신을 타고 온 꼬마 판사
	중학생	안녕, 젠더
	청소년 자원봉사(고등학생)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2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사진 출처

☑ p.11 이집트 사자의 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0785&cid=47318&categoryId=47318>

☑ p.12 마아트

[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D%8A%B8_\(%EC%9D%B4%EC%A7%91%ED%8A%B8_%EC%8B%A0%ED%99%94\)](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D%8A%B8_(%EC%9D%B4%EC%A7%91%ED%8A%B8_%EC%8B%A0%ED%99%94))

☑ p.14 솔로몬의 재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209&cid=46720&categoryId=46811>

☑ p.16 갈릴레이의 재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66995&cid=59014&categoryId=59014>

☑ p.19 해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483&cid=58840&categoryId=58854>

☑ p.20 정의의 여신의 우의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406353&cid=46702&categoryId=46753>

☑ p.25 조선시대 재판

검찰블로그 <http://blog.naver.com/spogood/90047663492>

☑ p.30 신전에서의 봉헌

wikimedia commons

☑ p.31 법복

<http://www.scourt.go.kr/judiciary/history/robe/index.html>

<http://blog.daum.net/mojjustice/8708336>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2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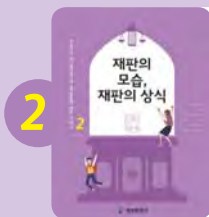
발 행 일	1판 1쇄	2019. 10.
	1판 2쇄	2020. 08.
	1판 3쇄	2021. 12.
집 필 진	연 구 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박성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공 동 연 구 자		곽한영(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자영(공주교육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현철(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지윤(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자	김경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이수진(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전진현(신반포중학교 교사)
		황선영(서창고등학교 교사)
발 행 처	법원행정처	
	T) 02.3480.1262	
	F) 02.593.2641	
디자인/인쇄	(주)홍디자인	02.464.5167
인 쇄	(주)마이컴피앤씨	02.2273.6153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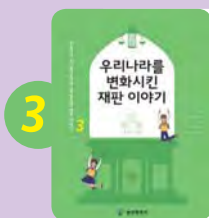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이야기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여러 사건과 인물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법제도의 영향력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지만, 법과 사법제도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사법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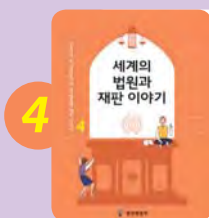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법을 적용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를 재판이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비롯해 재판의 판단 원칙, 종류, 절차 등 다양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학교에서 배운 재판 이야기가 쏙쏙 이해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재판 이야기

판례란 법을 통해 해결한 여러 사건의 결과를 모은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례를 통해 법이 어떻게 갈등을 풀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왔는지 알아봅시다. 책에서 소개한 판례의 의미를 친구와 함께 토론했다 보면 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세질 것입니다.



세계의 법원과 재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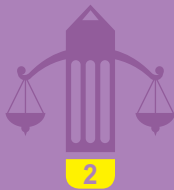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고유의 법을 만들어 정의를 구현해 왔습니다. 물론 인간의 존엄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만국 공통일 것입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법과 법원, 재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봅시다.



교과서 속, 법으로 사는 세상

우리는 법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집, 학교 어디서든 우리는 법과 만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본권의 보장과 법', '일상 생활과 법', '청소년 생활과 법' 이 세 가지 주제로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판과 법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만든 법교육 교재입니다. 대법원 및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위 책자의 원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